

조선시대 궁중의례행사의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최 지 영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과정)

한 동 수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조교수)

주제어 : 차일, 궁중의례행사, 막구조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는 강화된 유교적 질서로 사회가 예제화되면서 유교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궁중에서는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례로 대표되는 오례(五禮)를 기반으로 한 의례행사가 운영되었고, 민간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례행사가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들어 의례행사가 증가하면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가설시설(假設施設)의 사용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었다. 가설시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해체하는 임시적인 시설을 말하는데,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의례행사마다 반영구적인 부대시설을 새롭게 구축(構築)하는 것보다 이러한 가설시설을 임시적으로 배설(排設)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으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부터 민간의 의례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시설들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차일(遮日)을 들 수 있다. 차일은 일반적으로 일사(日射)와 강우(降雨)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종의 막구조시설(幕構

造施設)이다. 비록 차일이 계층을 막론하고 두루 사용된 가설시설이었지만, 많은 인원과 의장(儀仗) 및 의물(儀物)을 수용해야 하는 궁중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차일이 조선시대 궁중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가설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미진한 상황이다. 궁중에서의 차일은 단순히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치한 가설시설이 아니라, 궁중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활용된 일종의 건축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의례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차일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관련된 차일의 활용을 밝히고 둘째, 차일의 구성, 종류, 재료, 배설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하며 셋째, 궁중의례행사가 운영되었던 공간 안에서 차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정·복원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의례행사에서 사용한 차일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전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이전 시기를 부분적으로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차일의 세부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이 전해지는 19세기 이후의 궁중연향(宮中宴享)에서의 차일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²⁾.

연구 방법은 사료, 의례서, 의궤, 시각자료(宮中記錄畫·官衙圖·風俗畫·寫眞帖)들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막 구조 시설의 활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차일을 파악해본다. 3장은 조선시대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궁중의례행사에서 사용된 차일의 특성을 알아본다. 4장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19세기 이후의 궁중연향의 공간구성과 사용된 차일을 의궤와 궁중기록화를 통하여 밝힌다. 5장은 궁중연향에서 사용된 차일의 구체적인 특성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알아본다. 6장은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궁중연향이 이뤄진 실제공간에서 차일의 배설을 추정하여 복원을 시도해본다.

1-3 차일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차일의 개념과 범위를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기 위하여 먼저 차일에 대한 정의를 밝혀본다.

차일(遮日)은 일사(日射)와 강우(降雨)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주재료가 막으로 된 가설시설을 말한다³⁾. 차일은 그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궁중에서 사용한 차일은 일반적으로 직물(織物)로 만든 차일장(遮日帳), 대나무로 된 차일죽(遮日竹), 고정을 위한 줄 등으로 구성된다. 차일장과 차일죽은 줄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차일장의 끝 부분은 다시 줄로 당겨져 지면의 말뚝이나 차일고리에 고정된다⁴⁾. [그림1] 이때 차일장은 인장재로, 차일죽은 압축재로 작용하게 되고, 줄에 의해 차일장이 팽팽하게 당겨지기 때문에 차일은 구조적으로 장력막구조(張力幕構造)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건축적으로 막구조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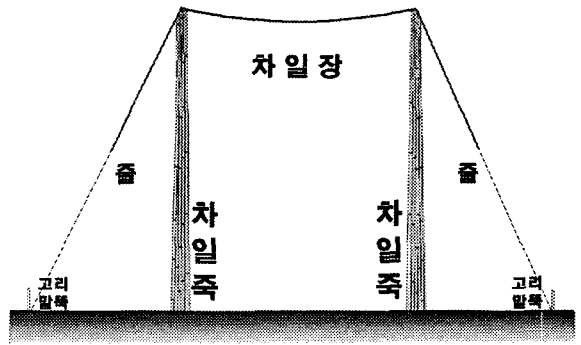


그림 1 차일의 구성

궁중에서 차일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행사에서 사용된 시설뿐만 아니라, 일사(日射)와 강우(降雨)를 함께 차단하기 위한 모든 막구조시설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차일은 일사와 강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례행사와 관련하여 전각이나 외부공간에 배설된 시설로 한정한다.

2)19세기 이후는 순조조(純祖朝)부터 고종조(高宗朝)를 거쳐 대한제국시기까지를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궁중연향은 궁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축행사를 통칭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궁중연향은 구체적으로 진연(進宴)·진찬(進饌)·진작(進爵)행사로 한정된 개념이다.

3)차일(遮日)은 용어 그대로 햇볕 즉 일사의 차단이 주 기능이며, 강우의 차단은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다. 차일은 막을 주재료 한 막구조시설이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막이 금방 젖어버려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막구조의 특성상 가변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우의 차단은 방수처리와 구조적인 보강 등의 조건이 갖추어 젖을 때 가능한 기능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차일 중에는 방수처리가 된 차일이 존재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일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4)이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이며, 각 부재간의 연결 및 고정 방식에 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5)막구조시설(Membrane Structure)은 크게 천막구조(Tent Type)와 공기막구조(Pneumatic Structure)로 분류되는데, 공기막구조의 경우는 근대 이후에 등장한 막구조유형이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천막구조는 다시 장력막구조(Suspension Membrane Structure)와 골조막구조(Space Frame Structure by Membran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막구조시설로 예를 들면 골조막구조는 몽골민족의 빠오(包:Ger)나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티피(tepee)처럼 어떠한 응력 없이 지탱이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장력막구조의 경우는 북아프리카의 유목민족인 베두인(Bedouin)들의 흑색천막(Black Tent)처럼 미리 주어진 응력에 의하여 지탱되는 막 구조물을 말한다. 차일의 경우는 역시 장력막구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이전의 막구조시설

일반적으로 막 구조는 유목민들이 사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된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살펴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조형태이다⁶⁾. 이는 막 구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막 구조는 약한 내구성과 가변하중에 취약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변성과 경량성, 그리고 설치·해체·운반 등 취급상의 용이성 등 여타 구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막 구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막 구조를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왔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전통적인 환경에 맞춰 사용되어 온 막구조시설의 구체적인 활용을 주요 사료가 남아있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2-1 막구조시설의 용도

2-1-1 주거공간에서의 활용

우리의 경우는 농경 생산 체제를 일찍부터 갖추었기 때문에, 유목민처럼 실질적인 주거 수단으로 막구조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주거공간에서 장식이나 일사를 막기 위한 시설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막은 직물(織物)이기 때문에 그 재료와 제작 방식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염색과 같은 가공이 쉽게 더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막은 일찍부터 주거공간의 내·외에서 장식의 기능을 하는 일종의 시설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의 커튼처럼 개구부에 설치되어 내부로 들어오는 일사를 차단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6) 일반적인 막구조는 유목민들의 이동주거처럼 일정한 자연환경과 생산체계를 가진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어느 문명권이든지 군막으로 막구조시설을 사용하였고, 도시 내의 문화·상업·종교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공간에서 가설시설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통해 살펴보면 신라시대의 주거 공간 안에서 유(帷)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는 없으나 실내에 치장을 목적으로 설치된 휘장(揮帳)들이었으므로 보인다⁷⁾.

이러한 사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인의 현세관과 내세관을 담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로 이뤄져있는데, 이중 생활풍속계 고분벽화들은 당시의 풍속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해볼 수 있다⁸⁾. 이들 생활풍속계 고분벽화에는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막구조시설들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묘주(墓主)들이 사용한 일산(日傘), 마차(馬車)에 부착된 차일,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막구조시설들이 그것이다⁹⁾. 이중 실내에 설치된 막구조시설은 주로 묘주의 초상과 그들의 가내생활을 그린 묘주도에서 등장한다¹⁰⁾. 기존의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연구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일반적으로 장방(帳房)이나 약(幄)이라고 칭한다¹¹⁾.

묘주도에 묘사된 장방의 모습은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형태를 유추하기는 힘들지만, 고구려고분벽화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후한(後漢)시기의 하북(河北) 안평(安平) 녹가장전실(綠家莊專室墓)벽화의 묘주도에 그려진 구조물을 통해 고구려 장방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그림2]

7)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第六 薛聰

『三國遺事』 感通 第七 金現感虎

8) 생활풍속계 고분벽화의 기본제재로는 묘주도(墓主圖), 행렬도(行列圖), 수렵도(狩獵圖), 가무도(歌舞圖), 연회도(宴會圖), 생활공간도(生活空間圖) 및 일월성수도(日月星宿圖)등을 들 수 있다.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119참조

9) 일산(日傘)은 수산리고분의 널방 오른쪽 벽화, 복사리고분 널방서벽 및 천장고임벽화, 덕흥리고분 여주인나들이, 장천제1호 불교공양도, 삼실총 행렬도 등에서, 마차에 설치된 차일은 안악제3호분 앞방 왼쪽 결방벽화(차고)와 행렬도, 덕흥리고분 실내생활도와 행렬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 묘주도의 경우 생활풍속계제재들의 후퇴현상이 나타나는 5세기 중엽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제재로 선택되지 않는다. 앞의 책, p.110

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주거공간에서 사용된 막구조시설에 대해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장방(帳房)'을 그대로 사용한다.

평행사선구도(平衡斜線構圖)로 된 그림을 통해 보면, 묘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보개(寶蓋)와 같은 목구조물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장방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추정되는데, 일종의 보개처럼 평상(平床) 위에 설치된 목구조물에 휘장을 풍성하게 두른 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하북 안평 『녹가장전실』의 「묘주도」

장방의 크기는 묘주도마다 차이가 있다. 장방의 크기는 묘주의 위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용된 인원수에 따라 달리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 묘주 혼자서 단독으로 앉아있는 것에서부터(덕흥리고분·안악3호분), 부부가 함께 자리하거나(약수리고분), 여러 부인들과 함께 자리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수렴총), 가내생활이 나타나는 경우는 묘주 곁에서 시종을 드는 시종들(무용총·각저총)까지 장방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장방의 크기는 수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용총이나 각저총의 경우처럼 큰 규모로 표현된 장방의 경우는 더욱 더 풍성하게 휘장이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장방의 휘장은 지붕 부분에서부터 사면으로 둘러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의 커튼처럼 전면부는 옆으로 걷어 매듭을 지어 고정 시킨 것으로 보이며, 장방의 풍성한 휘장은 이와 같은 휘장의 고정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방의 휘장은 묘주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색을 가지고 정확하게 휘장의 색조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붉은색과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된 휘장들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안악제3호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장방의 묘사가 세밀하지는 않지만, 휘장이 매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어두운 색조의 휘장에 붉은색의 수가 새겨져 있어 다른 장방의 휘장보다 더욱 강렬하고 화려해 보인다. 이처럼 화려한 휘장은 명주와 같은 비단류의 직물로 추정된다.



그림 3 『안악제3호분』 「묘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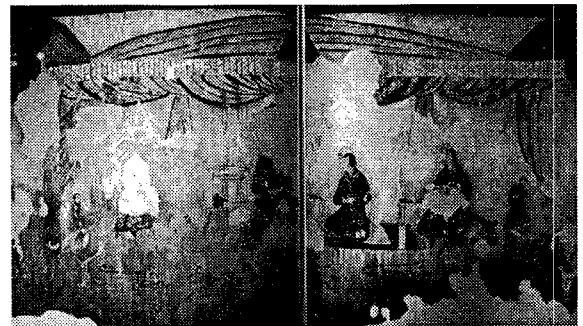


그림 4 『각저총』 「묘주도」

장방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의 묘사를 살펴 보게 되면, 기둥이 다양하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장방의 기둥에는 휘장이 감겨있는데, 그 두께로 보아 어느 정도 굵기를 가진 목재가 기둥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안악3호분과 수렴총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둥에 휘장이 둘러져있지 않은데다 그 두께도 얇아 보인다. 이것은 장방을 벽화에 그리면서 표현상의 생략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나무와 같은 얇은 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수렴총의 경우 기둥을 비롯하여 장방에 사용된 목재들이 마디로 분절되어있으며, 그 색으로 볼 때 대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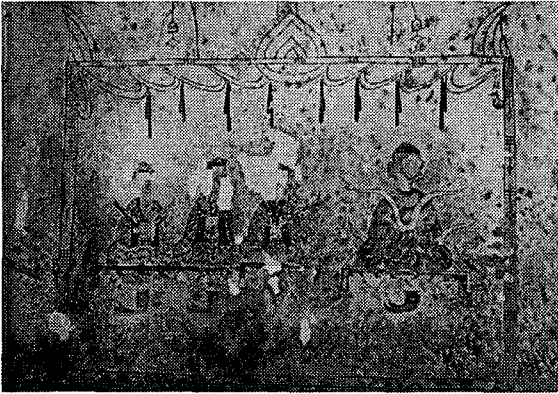


그림 5 『수렵총』 「묘주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장방들은 실내에 설치되는 일종의 막구조시설로 실내공간을 장식하고, 묘주가 자리하는 평상위에 화려하게 설치되어 묘주의 권위를 세우고 의부로부터의 시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궁(徐兢)이 남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이하 '고려도경'¹³⁾)의 권23 잡속(雜俗)조 토산(土産)을 보면, 고려시대의 염색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는 고려의 염색비단(纈)을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져서 비단으로 만든 막 구조 시설들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도경』 권27 관사(官舍)조에서는 서궁 일행이 거주하게 되는 관사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실내에 비단을 수놓은 장막(錦繡帷幄)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설 역시 실내공간의 장식을 위한 설치물로 판단된다.

또한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들도 언급이 되어있다. 같은 기록에 실내에 염막(簾幕)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

으며, 권6권 궁전(宮殿)조를 보게 되면 문유(門帷)라는 시설이 나온다. 문유는 문에 걸어두는 휘장으로 생각되며, 궁실 안에서 부인들이 일사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설명으로 보아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처럼 주거공간에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막구조시설들은 주로 실내를 장식하고, 내부로 유입되는 일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장방의 경우는 실내거주자의 권위와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들은 장식효과를 중시하였으므로 화려한 비단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2 전시(戰時)의 활용

전시의 막구조시설의 활용은 유목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막구조시설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군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군막의 경우는 기능이 최우선시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군막들이 사용되었다. 전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막으로 된 편리한 가설시설이 가장 적합했다. 막으로 된 군막(軍幕)은 우선 가벼워서 운반이 용이하였고, 신속하게 설치와 해체를 할 수 있었으며,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시에서는 필수적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군막으로써 막구조시설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전시에 사용한 군막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또한 군막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전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막구조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군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시대는 요(遼)·금(金)·원(元)등과 군사적인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무신정권이 들어섰던 역사적인

12) 일찍이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은 『조선건축미술사초고』에서 이러한 막구조시설들을 막장건물(幕帳建物)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일부에서 죽간(竹竿)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한다.

13) 『고려도경』에는 장막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룬 「권28 공장(供帳)」이 따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시설에 관한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또한 칙사에게 대접했던 연회인 「권26 연례(宴禮)」, 궁궐을 묘사하고 있는 「권6 궁전(宮殿)」, 서궁 일행이 묵었던 장소에 관한 「권27 관사(官舍)」, 풍속을 다루고 있는 「권23 잡속(雜俗)」, 배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선楫(船楫)」에서 부분적으로 막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14) 『三國史記』 卷第四十二 列傳 金庾信

『三國史記』 卷第二十 高句麗本紀 嬰陽王

15) 『三國史記』 寶藏王 上

특성으로 인하여, 군막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된다¹⁶⁾.

2-1-3 궁중행사에서의 활용

신라시대부터 국가적인 불교행사가 거행되었으며, 채붕(綵棚)¹⁷⁾이라는 궁중연향이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팔관회처럼 더욱 큰 규모의 불교행사가 거행되었고, 조선시대보다 앞서 오례를 바탕으로 한 유교의 의례행사도 함께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막 구조 시설들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주로 등장하는 관련 막 구조시설로는 장전(帳殿), 악전(幄殿), 왕악(王幄), 대차(大次)와 소차(小次)¹⁸⁾, 악차(幄次), 편차(便次), 신차(臣次), 사차(司次), 부사차(副使次), 신악(神幄), 장역(帳帟), 유(帷), 장(帳), 악(幄), 채붕(綵棚), 모전장(毛氈帳)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궁중의례행사와 관련해서 사용된 시설들과 동일한 시설들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경우는 궁중에서 빈번하게 연향행사가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막구조시설들이 궁중에서 사용되었다. 『고려도경』을 통해 살펴보면, 권26 연례(燕禮)조에서 연음(燕飲)에 사용되는 각종 장막들이 화려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배표연(拜表宴) 후에 신봉문(神鳳門)에 장막을 쳐서 주인과 빈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권28 공장(供帳)조를 살펴보면 회경전(會慶殿)과 건덕전(乾德殿)에서 열리는 왕실의 공식회합에서 수막(繡幕)이라는 화려한 막구조시설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

한 기록들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 시대부터 궁중의 행사에서 막구조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매우 화려한 막구조시설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2-2 조선시대 이전의 차일관련기록

조선시대 이전에서도 차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시설들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차일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막구조시설을 궁중에서 활용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보편적인 구조형식이며, 궁중에서는 궁중행사와 의례운영과 관련하여 차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사용했다.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궁중에서 만전(幔殿)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전은 왕을 위해 야외에 가설되는 막 시설로 파악되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장전(帳殿)과 유사한 개념의 막 시설로 추정된다¹⁹⁾.

장전은 막(帳)으로 된 전각(殿閣)인데, 조선시대 궁중행사와 관련하여 외부공간에 독립적으로 배설된 차일을 말한다²⁰⁾. 『고려사』에서는 이러한 장전(帳殿)과 동일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미 고려시대에서부터 같은 시설이 궁중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려시대의 장전은 주로 야외에서 열리는 의례행사와 관련되어 설치되었는데, 특히 연회를 위하여 배설한 기록들이 많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차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궁중에서 활발하게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일이 조선시대에만 사용된 가설시설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막구조시설을 사용해오던 우리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시설임을 알 수 있다.

16) 『高麗史』 第一白二十九券 列傳 四十二 崔忠獻

『高麗史』 第九十四券 列傳 七 徐熙

『高麗史』 第一白二十六券 列傳 三十五 邊安烈

17) 채붕(綵棚)은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로 중국의 칙사가 오거나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 행해졌던 연향행사의 한 종류를 말한다. 둘째는 이러한 행사가 치러질 때, 왕이나 칙사가 행차하는 곳의 성문이나 다리 또는 가가 등에 장식하던 색실·색종이·색형걸을 말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5권 p.69참조)

18) 대차(大次)는 의식의 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며, 소차(小次)는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물러나 기다리는 곳을 칭하는 것이다. (앞의 책 2권 p.197참조)

19) 『三國遺事』 奇異二篇 駕洛國記

20)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 꾸민 자리. 차일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막고 바닥을 높여서는 채화석(綵花席)이나 별문석(別紋席) 등을 펼침 (앞의 책 4권 p.577참조)

3. 조선시대 궁중의례행사와 차일

3-1 궁중의례행사에서 사용된 차일의 유형

조선의 궁중의 의례행사는 『주례(周禮)』를 바탕으로 한 오례(五禮)에 의해 정리되었고,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례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의례행사가 백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궁중 의례 중 가례·흉례는 주로 궁궐 안에서, 길례·빈례·군례는 주로 궁궐 밖에서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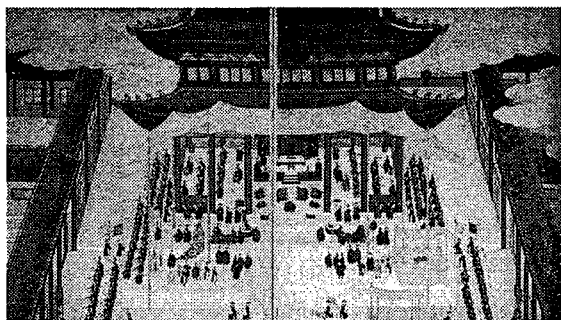


그림 6 전각에 설치한 예
(『무신진찬도병』, 『인정진찬도』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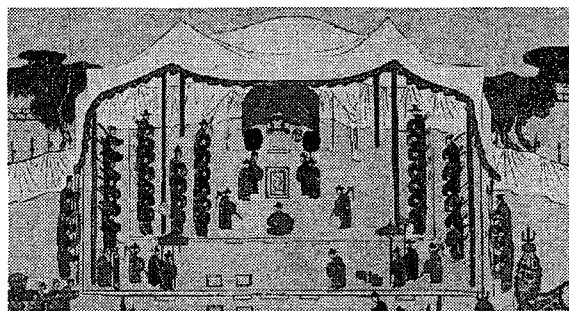


그림 7 독립하여 설치한 예(帳殿)
(『대사례도』, 『어사도』부분)

하지만, 차일의 배설은 궁궐의 내·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공간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차일이 설치되는 방식은 기존의 전각에 부착되어 설치하는 방식(이하 ‘전각부착방식’)과 외부공간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방식(이하 독립설치방식)으로 구분된다. ‘독립설치방식’은 의례서에 주로 장전(帳殿)이라고 칭하는 구조이다.

이 두 가지의 방식 모두 일사와 강우로부터 의례행사의 주관자인 왕과 왕실가족 그리고

성스러운 행사 공간을 보호하고, 차일 밖의 공간과 구별을 해주면서, 행사공간에 위계를 부여해준다는 공통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전각부착방식’은 기존의 공간을 차일을 이용해 행사 공간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우선시하고, ‘독립설치방식’은 기존의 외부 공간을 구체화하여 행사를 위한 내부공간을 형성시키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각부착방식’에서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보계가, 독립설치방식에서는 장전주변의 영역을 구체화하는 휘장 등이 함께 사용된다.

차일의 배설 방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전각부착방식’의 경우에는 차일장의 한 변이 전각에 고정된 차일고리 같은 철물에 연결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차일의 배설방법이 기록된 문헌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궁중기록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배설 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차일의 배설방법은 차일장과 차일죽이 연결되는 방식에 의해 네 종류로 구분되고, 차일장을 당겨서 지면에 고정되는 방식에 의해 세 종류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차일의 구축 방식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기록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차일의 배설 방식의 종류와 관련 기록화

분류	배설 방식	기록화
연결 방식	차일죽이 차일장을 밑에서 지탱	『어사도』
	차일장과 차일죽이 줄로 연결되어 고정	『모화관친림시제도』
	차일죽을 차일장의 구멍에 끼워 고정	『무신내진찬도』
	차일장이 차일죽을 감싼 방식	『회혼례도21』
고정 방식	줄을 차일고리에 연결	『현종가례진찬도병』
	줄을 말뚝에 연결	『준천당랑시사연구첩』
	차일장을 말뚝으로 직접 고정	『왕세자탄강진찬도병』

3-2 궁중에서의 차일 관리

조선시대에는 차일을 비롯한 장막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전설사(典設司)를 궐내에 두었다. 전설사는 병조 소속의 관청으로 초기에는 제조(提調) 1명, 수(守) 1명, 제검(提檢) 2명, 별좌(別坐) 2명, 별제 2명의 관원을 두었으나, 뒤에 별검(別檢) 1명을 두고 수·제검·별좌 등의 관직은 폐지하였다. 전설사는 각 궐마다 따로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경복궁에는 홍례문(弘禮門) 동쪽에, 경희궁에는 건명문(建明門)안에 위치하였고²²⁾, 창덕궁의 경우는 동궐도 상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궐내각사(闕內各事)가 모여 있는 진선문(進善門)밖에 위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창경궁의 경우는 전설사는 따로 정해진 장소 없이 그때그때 빈곳에 두고 사용하였다²³⁾.

전설사는 고려시대에 같은 임무를 담당했던 수궁서(壽宮署)에서 비롯된 것이다. 궁중에서 장막을 담당하던 직제는 『주례』와 관련이 있는데, 『주례』의 「천관편(天官篇)」을 보면 장차(掌次)와 막인(幕人)이라는 직급이 나온다. 장차는 왕의 장막을 범규대로 치고 장막 안에서 거처하는 법규를 관장하며, 장막치는 일에 항상 대비하는 직제이다. 막인은 휘장과 위를 덮는 장막 그리고 그에 따르는 줄을 매는 일을 관장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러한 수궁서와 전설사와 같은 관청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성 외에도 주례를 기반으로 하였던 오례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례의 직제가 계승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조선시대 차일의 특징

우리와 비슷한 의례운영과 목조건축체계를 가진 중국의 경우도 의례행사에 막구조시설을 사용하였다. 중국은 유목생활을 하던 이민족들이 정복왕조²⁴⁾로 중국을 통치하면서 이

러한 시설들이 궁중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선시대와 동시대이며 비교적 많은 시각자료들이 남아있는 청대(淸代)의 궁중기록화에 보이는 막구조시설과의 비교를 통하여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막구조물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차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대의 건륭제(乾隆帝)의 여름 별장인 만수원에서의 사연을 그린 만수원사연도(萬樹園賜宴圖)를 살펴보면, 건륭제를 위한 장전이 야외에 배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장전은 앞서 밝힌 차일구성요소들로 간단하게 구성된 것과는 반대로, 청대의 장전은 전통 주거형태인 빠오(包:Ger)형식으로 배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이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한 막구조물의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장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수원사연도의 장전 앞에는 목부재로 구성된 우진각 지붕 형태의 막구조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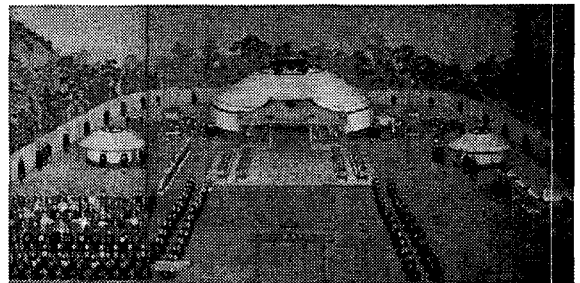


그림 8 「만수원사연도(萬樹園賜宴圖)」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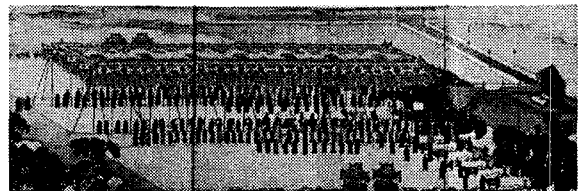


그림 9 「옹정제궁경자전도(雍正帝躬耕藉田圖)」부분

선농단(先農壇) 앞에서 행해진 옹정제(雍正帝)의 친경행사도(雍正帝躬耕藉田圖)를 살펴보면, 황제가 손수 쟁기질을 하는 친경영역에 화려한 막구조시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바탕에 각가지 수(繡)가 새겨진 화려한 이 시설은 그 규모와 형태로 볼 때, 목구조로 주요 구조체를 구축하고 막을 씌운 구조물로 보인다. 기둥은 일렬로 배치되어

21)『회혼례도』의 경우, 민간에서 그려진 기록화이다.
 22)『增補文獻備考』「朝鮮朝 宮室」
 23)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2003, p.214 참조
 24)정복왕조는 중국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지배한 요(遼:거란족)·금(金:여진족)·원(元:몽골족)·청(淸:만주족)등의 왕조를 가리킨다.

있는데, 구조체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선방향의 기둥을 함께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 역시 차일의 일종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청대에도 궁중의례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막구조시설이 사용되었고, 이들의 배설 방식, 구성요소, 형태는 조선시대의 차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대의 시각자료를 살펴보면 궁궐 내의 의례행사에서 차일을 배설하지 않았다. 즉 ‘전각부착방식’처럼 전각과 연계된 막구조시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막구조시설은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독립설치방식’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 궁궐 내에서는 ‘전각부착방식’의 차일이 활발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궐내의 공간이용에 있어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의 자금성과는 달리 조선의 궁궐은 보다 유기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조선의 궁궐 역시 영건 이전에 의례운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지만, 의례를 위한 공간을 전부 따로 둘 수가 없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궁중의례행사를 모두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궁중은 제한적인 궁궐 내 공간을 여러 가설시설을 이용하여 변용하면서 다양한 의례행사를 효율적으로 거행하였다. 전각에 부착하여 사용한 차일의 경우는 일사와 강우를 차단한다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궁궐내의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대의 궁중과는 달리 ‘전각부착방식’이 널리 사용한 것은 중국의 전통건축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들문이나 들창 같은 가변적인 건축요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가변적인 개구부를 들어올림으로써,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차일은 이처럼 공간을 확장시켜 사용하는 수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4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차일

궁중연향은 오래 중 가례에 속하는 예제로써

궁중의례 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차일의 기능과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의례행사이다. 이는 궁중연향과 관련하여 많은 행사관련의례들과 궁중기록화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의례들은 연향에서 사용된 건축 시설들의 제작과 수리를 기록한 「수리조(修理條)」와 물품들의 설치를 기록한 「배설조(排設條)」를 담고 있어 차일의 구체적인 설치와 재료적인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4-1 궁중연향의 성격과 특징

궁중연향은 오래 가운데, 만민화친(萬民和親)의 취지를 지닌 가례에 속하는 예제이며, 가례로 분류되는 어느 행사보다도 가례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행사이다²⁵⁾.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의 어극(御極)을 기념하거나, 왕실어른의 생신을 기념하는 등 주로 왕실의 기념일과 경축일에는 늘 연향을 베풀어 그 의미를 되살리고 축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궁중연향의 개념과 실행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숙종대를 지나 영조대에 이르러서야 그 개념들이 정리되었다²⁶⁾. 이렇게 정리된 궁중연향이 진연(進宴)·진찬(進饌)·진작(進爵)이었고, 이후부터 모든 궁중연향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만 진행되었다.

진연을 기준으로 궁중연향의 진행을 살펴보면, 우선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상을 반영하여 주관자에 따라 외연(王)과 내연(王大妃·王大妃)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각 행사의 가설시설과 악공(樂工)·여령(女伶)같은 행사관계자까지 달라진다. 외연(外宴)이나 내연(內宴)을 마치게 되면, 밤에 열리는 야연(夜宴)이 이어졌고, 이튿날 왕이나 왕세자가 주관하여 행사관계자들을 위로하는 익일회작(翌日會酌) 등이 벌어졌다. 이러한 연향의 진행은

25) 박정혜, 『19세기 궁중연향과 궁중연향도병』, 국립국악원, 2000, p.222참조

26) 원래 진찬과 진작은 각각 음식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는 의례상의 절차였으나, 영조조에 들어서 진연보다 규모와 물자 면에서 간소화된 의례를 칭하는 것으로 새로 정리되었다. (앞의 책 p.226참조)

19세기를 걸쳐 대한제국시대까지 계속되었다.

4-2 연향공간구성과 차일의 활용

궁중연향은 대표적인 궁궐 내 행사로서 어느 의례행사보다도 차일을 비롯한 가설시설이 많이 사용되었다.

무신(戊申)년(헌종14년, 1848)에 이루어진 진찬행사는 대왕대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육순과 왕대비인 신정왕후(神貞王后)가 망오(望五:41세)가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연향이었다. 3월16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의 주관 하에 진하례(進賀禮)가 있었고, 17일에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내진찬 및 야진찬이 이뤄졌으며, 19일에는 헌종의 주관으로 익일회작과 익일야작이 이뤄졌다. 이 진찬행사는 의례도가 포함된 의궤²⁷⁾로 간행이 되었고, 행사장면을 따로 그린 기록화가 도병(圖屏)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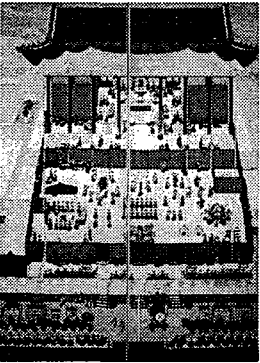


그림 10 「무신내진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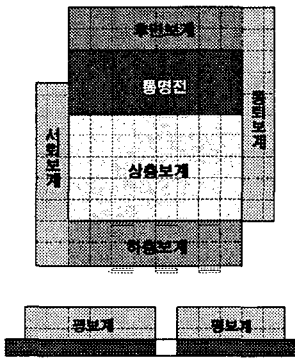


그림 11 배설된 보계 평면도(추정)

도병의 「내진찬도」를 보면 통명전 앞에 대구모의 보계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계는 상층보계, 하층보계, 동퇴보계, 서퇴보계, 후면보계로 다시 구분된다. 또한 보계 앞의 정양문(正陽門) 안쪽에 동서로 평보계(平補階)가 별도로 설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기록화에서, 주렴(朱簾)이 쳐져 있는 곳이 상층보계이다. 상층보계 전면 세 개의 문 앞에 계단

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보계에서도 공간의 위계에 따라 상층·하층·평으로 높이 차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상층보계에는 시선을 가리기 위한 대소주렴(大小朱簾)과 홍주갑장(紅紬甲帳)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서퇴보계와 동퇴보계에는 공간 구획을 위해 설치된 백목장(白木帳), 하층보계의 전면에는 황목장(黃木帳)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²⁹⁾.

보계 위에는 백목대차일(白木大遮日)이 설치되었다³⁰⁾. 백목대차일은 무명으로 된 차일을 뜻하는데, 기록화에서 보이듯이 통명전에 부착되어 차일죽과 함께 설치되었다. 그림에서는 차일장과 연결된 줄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 차일처럼 줄로 당겨져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목대차일은 그림에서 보이듯이 주요 행사 공간인 상층보계를 모두 가리도록 설치되었다.

『무신진찬의궤』를 살펴보면, 행사에 배설된 차일들이 백목대차일 말고도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은 만전유차일(滿箭油遮日), 각장부만전차일(各張付滿箭遮日), 유둔차일(油菴遮日) 등인데, 이들 시설은 어느 기록화와 의궤도서도 묘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형상을 알 수 없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궁중연향의궤들과 여러 관련 자료를 통하여 특성을 추정하였다.

5.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차일유형과 특성

5-1 백목대차일(白木大遮日)

백목대차일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궁중의례 행사에서 사용되는 차일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목대차일은 용어 그대로 무명으로 만든 차일을 가리키는데, 궁중연향과 관련된 의궤와 기록화에는 모두 백목대차일이 등장한다. 의궤에 백목대차일에 관한 구체적인 재료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차일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궤에서는 단지 백목대차일 1부(浮)로만 기

27) 『戊申進饌儀軌』, 헌종14년(1848) 규장각(奎 25027)

28) 『戊申進饌儀軌』 「排設條」, 上層補階四十九間半, 下層補階十四間, 東退補階九間, 西退補階十間, 後面補階十三間, 「修理條」, 正陽門內平補階九間

29) 『戊申進饌儀軌』 「排設條」, 大小朱簾十六間浮 紅紬甲帳十九浮 黃木揮帳七浮

30) 『戊申進饌儀軌』 「排設條」, 白木大遮日一浮

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대(大)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주요 행사 공간인 상층보계를 전부 가리는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크기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궁중에서 쓰인 차일은 십간차일(十間遮日), 오간차일(五間遮日), 삼간차일(三間遮日)등 크기에 따라 제작되었고³¹⁾, 차일을 설치할 때 50명의 군사를 초출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³²⁾ 행사의 규모와 해당 전각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차일이 사용되었고, 큰 차일의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차일장의 주재료인 무명은 고려 말 문익점(文益漸)을 통해 목화씨로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직물로,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에는 주로 포(布:綿布)와 목(木)으로 적혀 있다. 무명은 그 무게가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쉽게 직물로 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민간에서 사용한 직물이었다. 하지만 조선왕조는 검약한 생활을 중시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도 무명은 종종 사용되었다.

무명은 올수를 가리키는 승(升)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³³⁾, 궁중에서는 여러 종류의 무명을 사용했다. 차일의 경우는 태종(太宗)이 5승포(五升布)를 사용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주로 5승짜리 무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차일장은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비슷한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모호했다. 이에 광해군이 명을 내려 민간의 차일장과 차별화를 하였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차일장은 용과 봉황을 그려 넣은 용봉차일(龍鳳遮日)로 하고 '전설사(典設司)'를 새겨 넣도록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차일의 밑단이 푸른색으로 되어있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푸른색의 밑단 없이 그냥 사용하였다.³⁵⁾

차일죽은 대나무로 되어있는데, 백목대차일

인 경우 어떤 대나무를 사용했는지의 기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궁중행사에서 사용되는 대나무는 중죽(中竹)이기 때문에, 같은 중죽으로 추정된다. 대나무는 역시 무명과 더불어 국가에 공물로 바치던 물품이다. 대나무는 어느 목재보다도 가벼워 가설시설에 주로 사용되었다³⁶⁾. 대나무는 일정한 생산지에서만 공급이 되던 희소성이 있는 물품이었고, 큰 행사 있으면 많은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중에서는 급하게 구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³⁷⁾. 차일죽은 여러 개를 합쳐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높이를 연장하고, 보다 견고함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백목대차일에 사용된 줄 역시 기록이 없지만, 유둔차일에서 주로 달피소(槿皮所), 진피소(進皮所), 조소(條所)와 같은 줄들이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러한 재료를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궁중연향에서 백목대차일은 해당 전각에 부착되어 배설된다. 보통 차일이 배설된 전각의 평방, 창방, 기둥, 서까래 마구리 등에는 여러 고리 등이 박혀있는데, 이러한 고리들은 차일장을 연결하기 위한 차일고리로 추정된다.

5-2 유둔차일(油苴遮日)

유둔차일은 백목대차일과 더불어 궁중연향에 빠지지 않고 배설된 가설시설이다. 유둔차일의 경우는 기록화에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의궤에서 사용된 부재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유둔차일은 주로 비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차일로 추정된다. 유둔(油苴)은 일반적으로 유둔지(油苴紙)라고 하는 기름을 먹인 종이로서, 바닥에 까는 지의(地衣)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하지만 다른 뜻으로 기름 먹인 무명을 가리키기도 한다³⁸⁾. 이에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이를 이용한 가설시설이거나, 기름먹인 무명을 이용한 막구조시설로 해석될 수 있다. 의궤에 기록된 유둔차일의 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유둔지에 쓰이는 단위 번

31)『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燕山十一年 八月 四日

32)『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中宗 三十一年 六月 十八日

33)승(升): 피륙의 경사를 세는 단위. 경사 40올을 1승으로 친다.

34)『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太宗十六年 五月 一日

35)『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光海八年 四月 二十三日

36)『高麗史』 第一白三十四卷 列傳四十七 辛禡二篇

37)『承政院日記』, 『仁祖三年 二月七日』

38)『한국복식문화대사전』, 미술문화, 1998

(番)을 사용한 점, 유둔의 종류를 칭하는 육유둔(六油苳)이나 사유둔(四油苳)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유둔지로 만든 시설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름먹인 무명을 이용한 차일을 사용한 기록³⁹⁾이 있고, 현실적으로 종이보다는 막이 가설시설로 사용하는데 더욱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둔차일에 사용된 부재를 살펴보면 유둔, 중죽, 편죽(片竹), 달피소(槌皮所), 조소(條所), 진피소(進皮所), 세승(細繩), 중광두정(中廣頭釘), 대원환배구(大圓環排具), 중원환배구(中圓環排具) 등이 사용되었다. 중죽과 편죽은 일종의 구조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달피소·조소·진피소·세승은 대나무를 서로 연결하고 유둔차일의 고정을 위한 줄로 사용되었고, 중광두정·대원환배구·중원환배구는 철물로써 차일의 고정을 위한 고리로써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3 만전차일(滿箭遮日)

궁중연향과 관련된 의궤들을 살펴보면 만전유차일(滿箭油遮日), 각장부만전유차일(各張付滿箭油遮日), 만전유차일(滿箭油遮日), 양철부만전차일(洋鐵付滿箭遮日) 등의 만전차일들이 발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은 통칭해서 만전차일이라고 칭한다.

만전차일 역시 유둔차일처럼 기록화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⁴⁰⁾, 형태와 구성을 알 수 없지만, 의궤의 부재를 통하여 그 형태와 구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만전차일은 구성 재료로 볼 때 막 시설은 아니며, 목구조로 된 가설시설로 추정된다. 이는 주(柱), 장보(長樑), 합량(合梁), 도리(道里), 창방(昌防), 동자주(童子柱), 종량(宗樑), 사목(斜木), 지주(地柱), 인방(引枋), 수장판(修粧板) 등의 목부재가 만전차일의 재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만전차일에는 유둔이나 옷칠을 한 각장(各張)·초주지(草注紙)·저주지(楮注紙) 등의 방수기능을 하는 종이류가 사용되었다. 의궤를 살펴보면 만전장자기(滿箭障子機)라는 부재가 나오는데, 만전장자기는 방수기능이 있는 종이 부채된 부재를 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만전차일에는 장목건(長木筧)·수통(水桶)·양철수통(洋鐵水桶) 등의 배수를 위한 시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수 및 배수를 위한 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만전차일은 유둔차일처럼 방수의 기능을 하는 차일로 판단된다.

6.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의 차일배설추정

궁중연향에서의 차일은 백목대차일, 유둔차일, 만전차일 등 총 세 가지가 함께 배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백목대차일은 상층보계에 배설되었다. 상층보계는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 내 공간이 연장된 공간이다. 또한 궁중가무(宮中歌舞)가 행해지는 주요 행사 공간이면서, 내연인 경우 왕의 자리가 배설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유둔차일은 하층보계와 평보계에 설치된다. 하층보계는 헌가(軒架)와 악공(樂工)들이 배치되는 공간이며, 평보계는 종친(宗親)과 척신(戚臣)들의 자리가 마련된 곳이다. 종친과 척신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자리가 구분되는 내연의 특성상 평보계에 자리를 잡았다. 이 두 공간은 상층보계보다 위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사와 강우를 함께 차단할 수 있는 유둔차일이 설치된다. 서퇴와 동퇴의 경우에는 질차상 필요한 소차가 설치된 것 말고는 빈 공간으로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차일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만전차일은 백목대차일 아래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진찬의 경우는 각장부만전차일(各張付滿箭遮日)이 설치되었다. 의궤를 보게 되면 ‘보계 위와 차일 아래’로 배설 위치가 설명되어있는데, 이때 차일은 백목대차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의궤에 나와 있는 상층보계의 칸수와 만전차일이

39)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宣祖二十七年 四月 二十三日 40) 내진찬도를 살펴보면, 백목대차일의 아래에 목부재로 된 가설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차양인지 만전차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배설된 칸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만전차일은 백목대차일의 아래에 배설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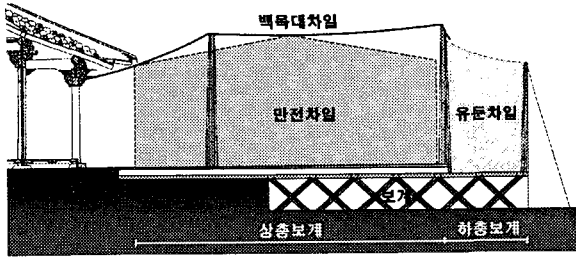


그림 12 무신진찬 시 보계 위에 배설된 차일의 추정복원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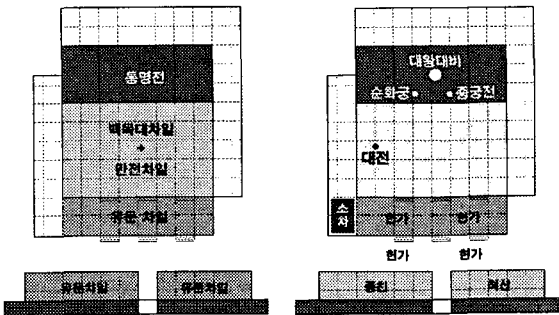


그림 13 차일별 배치도 그림 14 보계위 자리배치

이는 백목대차일이 방수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전차일은 목구조로 지어진 일종의 가설시설로, 방수 처리가 된 유둔이나 각장이 붙어있었고, 배수를 위한 수통 등이 설치되어, 갑작스런 강우 시 빗물에 의해 무거워져서 처지는 차일을 지지하고, 스며드는 낙수물을 신속하게 행사 공간 밖으로 배수시켜 내부행사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7. 결론

조선시대 궁중의 의례행사에서는 일사와 강우를 차단하기 위해 차일(遮日)이라는 막구조 시설(幕構造施設)을 가설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차일은 무명(白木)으로 된 차일장(遮日帳), 대나무로 된 차일죽(遮日竹), 그리고 이들 부재를 연결시키고 차일장을 당겨서

지면에 고정시키는 줄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재들이 각각 인장재와 압축재로 작용하면서 차일은 장력 막 구조로서 안정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막 구조 시설은 조선시대 이전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주거·전시(戰時)·궁중행사 등에서 장식, 군막, 의례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차일은 이처럼 오래 전부터 막구조시설을 사용하였던 우리의 전통적인 환경 속에서 의례운영과 관련하여 조선 이전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궁중의례에서 차일은 활발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차일을 비롯한 장막은 이를 담당하는 전설사(典設司)를 통해 관리되었고, 궁궐 내·외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의례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다.

차일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일사(日射)와 강우(降雨)를 차단하는데 있었지만, 기존의 전각에 직접 설치하거나 혹은 외부공간에 따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서, 의례 행사가 이뤄지는 내부공간을 확장시키거나 구획하는 기능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다른 공간과의 구별을 통하여 행사공간의 위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19세기 이후의 궁중연향을 통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차일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백목대차일(白木大遮日), 유둔차일(油菴遮日), 만전차일(滿箭遮日)이 그것인데, 백목대차일은 일반적인 차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궁중연향에서 상층보계처럼 주요행사공간에 사용되었다. 유둔차일과 만전차일은 비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로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유둔차일의 경우는 유둔(油菴)을 이용한 일종의 막구조시설이고, 하층보계나 평보계처럼 그 위계가 떨어지는 곳에 설치되었다. 만전차일은 지붕 부분에 방수처리가 된 일반 목구조로 된 가설시설로서, 백목대차일 아래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방수기능이 없는 백목대차일을 보완하여 가설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일은 일사와 강우의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한 가설시설로서 다른 문명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막구조시설이다. 조선시대의 차일의 경우 비슷한 의례운영과 목조체제를 가졌던 중국의 그것과는 달리 형태, 재료, 배설방식 등에서 차별되는 나름의 고유성을 가졌다. 차일은 의례행사 운영으로 유기적인 공간 활용이 요구되었던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필수적이었으며, 오래전부터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던 전통 수법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임시적인 가설시설이었다.

<참고문헌>

1. 『(原文譯註)三國遺事』, 명문당, 1990.
2. 『三國史記:原文篇』, 을유문화사, 1977.
3. 『(北譯)高麗史』, 신서원, 1997.
4. 『國譯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5. 『承政院日記』, 민족문화추진회.
6. 『國朝五禮儀』, 법제처, 1982.
7. 서궁, 『宣和奉使高麗圖經』, 황소자리, 2005.
8. 『增補文獻備考』, 홍문관, 1908.
9. 『戊申進饌儀軌』(奎 25027), 규장각, 憲宗14.
10.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2.
11. 조선회보사,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회보사, 1985.
12. 안휘준, 『옛 궁궐 그림』, 빛깔 있는 책들 198권, 대원사, 1997.
13.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14. 박정혜, 『19세기 궁중연향과 궁중연향도병』, 국립국악원, 2000.
15. Philip Drew, 『Tensile Structure』, Granada Publishing, 1979.
16.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17.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2003.
18. 한수원,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가변시설에 관한 연구: 판장·취병·가퇴·차양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 논문, 2000.
19.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3.

A Study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ha-il(遮日)' through the Analysis of Ritual Events(宮中儀禮行事) in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Congratulatory Events since 19C-

Choi, Ji-Young

(Graduate Student, Hany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Architecture)

Han, Dong-S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Architectur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ha-il(遮日)' which was used at ritual events(宮中儀禮行事) in the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had many ritual events related with O-Rae(五禮). Cha-il was almost used at important ritual events, especially at the congratulatory events. The congratulatory events(宮中宴享) are the representative events were held with many temporary install facilities(假設施設) in a palace.

Cha-il was a kind of Korean traditional membrane structures. Cha-il was set up for cutting off interior space from sunlight and rain. In general, Cha-il was Consisted of Cha-il-jang(遮日帳:woven fabric), Cha-il-jook(遮日竹:bamboo column), some ropes, and fixing wares.

In the congratulatory events, three types of Cha-il. were set up. Baek-mok-Dae-Cha-il(白木大遮日)was made of cotton cloth. Yu-Dun-Cha-II(油菴遮日)was made of oiled paper or oiled cotton cloth. Man-Joen-Cha-II(滿箭遮日)consisted of wooden structure. Baek-mok-Dae-Cha-il(白木大遮日)was set up on the most important area of stage for protecting from sunlight. Yu-Dun-Cha-II was set up on less important area of stage for protecting from sunlight and rain. Man-Joen-Cha-II was set up below Baek-mok-Dae-Cha-il for supporting and draining raindrops of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unctions of Cha-il were to protect ritually space from sunlight and rain, and to extend ritually space, and to reconstruct ritually space. Cha-il was the peculiar temporary install facility which differed from other countries.

keywords : Chail, Rituals, Membrane Structure
